

(6) 대보름날(上元·元宵·元夜·元夕)

대보름날 행사들은 농경적인 것이고 풍요의 기원을 나타내는 민속놀이가 많다. 음성원리인 달은 여성(지모신)으로서 생산과 번식, 풍요의 상징이다.

차 례

동이 트기 전에 성주님, 조왕님, 선영에게 제상을 올린다. 한편 곳간, 외양간, 측간에는 불만 켜놓는다. 머리맡에 두는 내전밥도 성찬으로 차려놓는다.

오곡밥

여러 곡식을 넣어 잡곡밥을 지어 먹는다. 그해 모든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곡류를 넣어서 밥을 짓는다. 세 집 이상 다른 성씨 밥을 먹어야 좋다고 하여 아이들을 시켜 일부러 얻어오도록 한다.

약 밥

시루밥, 찌밥, 무색밥, 성주밥, 고두밥 등으로 불리는 약밥은 찹쌀, 밤, 꿀, 잣, 팥, 콩을 섞어 시루에 찌서 만든다. 14일 오곡밥을 지은 다음 밤에 만든다.

보름나물

고사리, 버섯, 도라지, 녹두나물, 콩나물, 고구마순, 무말림, 더덕, 호박말림 등 1년 내내 장만 해두었던 나물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고 먹는다.

당 제

보름날 자시에 상당에 제를 모시고 8시경 하당제를 지낸다. 당에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다. 당제는 마을 제사로 마을의 번영과 주민의 강녕을 빌고 마을의 일체감을 조성하며, 새해의 새로운 성취의 바람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달 전후에 당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유지지대

유지방, 유지뽕이, 주저리, 노적봉우리, 화계(禾笄), 벗가릿대, 난가릿대, 주저지, 망기라고 부른다. 긴 장대 끝에 솔가지 잎이 달린 채 남겨놓고 다듬어 중간에 짚으로 노적뿔개 모양의 가리를 엮어 달고 큰 방문 앞에 세우는데 처마 바로 위에 방망이, 수수대비, 짚회기비, 가마니 등을 단다. 이 유지지대에 췌던 짚은 2월 하드래날 콩 볶아 먹는 데 쓴다.

용왕제

바닷가 마을에서는 상당제를 올리고 갯제인 풍어제를 올린다.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4일 밤에 뱃고사를 지내며 배가 무사하기를 빌고 풍어도 기원한다. 이때 무인이 연신곳을 하기도 한다.

달집태우기

보름날 밤 망월을 하기 위해서 언덕이나 마을 마당에 달집을 짓는다. 원추형·움막형으로

대나무를 엮어서 그 속에 쉼이나 짚을 넣고 불이 붙을 때 폭음이 나도록 대나무를 넣어둔다. 동쪽을 터놓고 그 가운데에 새끼줄로 달 모양을 만들어 내어둔다. 달이 떠오르면 달을 향하여 사배를 하고 달집 맨 위에 있는 불집에 불을 지른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서로 하려고 한다. 달집을 태우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며 풍년과 마을의 번영을 빈다. 달집이 잘 타고 그 불빛이 밝으면 풍년이 들고 마을에 달이 없으며 더위와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 이는 생산의 촉진과 재앙을 막는 정화의식이라 할 수 있다.

불넘기

14일 밤에 마당에 불을 피운다. 통대나 가지대, 호박덩굴, 피마자대, 또는 고추대를 엮어놓으면 그 튀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 튀는 소리에 액귀가 멀리 도망가버린다고 한다. 이 불은 나이수대로 대나무를 태우기 때문에 땃불이라고도 하며 불 옆에는 양동이에 물을 담아놓고 바가지로 엮어둔다.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한지로 옷을 해 입혀 그 불 위를 나이만큼 뛰어넘게 한다. 그리고는 한지를 불에 태우면 아이가 1년 내내 무병하다고 한다. 동이의 물은 불이 사그라지면 바가지로 물을 떠 집 주위에 뿌리면서 잡귀 물림을 한다. 이는 불, 소리, 물 등의 주력을 빌어서 액막이하는 의미를 지닌다.

복토 훔치기

복자(福者)집 밭에서 가져간 흙을 부엌에 바른다.

용알뜨기

부인들이 대보름날 첫닭이 울 때 우물물을 길어 오는데 이것을 복물·수복물·용알 떠온다고 한다. 맨 처음 길어 오는 사람이 운수 대통한다는 것이다.

이군히기

보름날 이른 새벽에 날밤, 호두, 은행, 무 등을 소리나게 깨물며 “1년 동안 이가 강해지고 무사 태평하며 중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수한다. 두부를 먹으면 살이 찌고, 더운 밥을 김에 싸서 먹으면 더위를 덜 탄다. 무를 먹으면 산삼을 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무김치나 눌은밥, 고춧가루 등은 먹지 않는다. 눌은밥을 먹으면 여름에 벌에 쏘이고, 김치나 깍두기를 먹으면 췌기에 쏘인다고 믿는다.

귀밝이술(耳明酒)

보름날 아침 청주 한 잔을 태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져 귓병이 생기지 않으며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들린다고 한다.

논밭독 태우기

정월 14일 논밭독에 있는 벌레와 휘어진 잡풀을 태운다. 불이 흰하게 잘 타면 풍년이 들고 연기만 나고 불이 꺼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까마귀 밥주기

오곡밥을 소쿠리 같은 것에 담아 처마 끝이나 담장 위 또는 절구통 위에 밥 세 그릇을 놓아

두고 까마귀나 까치가 와서 쌀밥을 많이 먹으면 논농사가 잘되고 콩밥을 많이 먹으면 밭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개보름 지내기

보름날에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세 집 이상 밥을 얻어와 절구통에 앉아 그 밥을 개와 같이 먹으면 개가 여름을 안 탄다고 한다.

새 쫓기

14일 또는 15일 아침에 마당이나 들에 나가서 새 쫓는 시늉을 하면서 긴 막대기를 휘두른다.

물 안 주기

보름날 남에게 물을 담아주면 농사철에 눈에 물이 모자란다고 한다. 보름날 아침에도 샘물을 긴지 않으며 종일 찬물을 먹지 않는다. 찬물을 마시면 농사 때 비가 많이 오고 남의 집물을 마시면 그 집 모내기할 때 비가 온다고 한다.

소에게 밥주기

보름 음식을 솥뚜껑에 차려 소 앞에 가져다 놓았을 때 소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해의 풍흉을 점친다.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들지만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음식을 주었을 때 먼저 먹는 음식, 예를 들어 보리밥을 먼저 먹으면 보리가 풍년이 든다고 한다.

망월점

달의 모습을 보고 그해의 농사점을 친다. 달이 떠오르는 자리, 떠오를 때 빛깔·모양·크기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평소 달이 뜨는 자리에서 뜨거나 남쪽으로 치켜 뜨면 비도 적당하고 풍년이 들며 북쪽으로 뜨면 가물고 흉년이 든다. 푸른 빛이 돌듯 맑으면 풍년이 들고 붉은 빛이면 가물고 흉년이 들며, 해가 지기도 전에 떠오르면 그해 햇머리가 평안치 못하다.

보름날 일기점

보름날 비가 오면 보리농사를 망친다고 하고 동 트는 것이 밝아야 좋고 바람이 일면 2월 영동바람이 세며, 구름이 끼면 벼에 해롭고 안개가 끼면 농사에 충해가 많다고 한다.

더위 팔기

보름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더위'라고 소리친다. 이렇게 자기의 나이만큼 더위를 팔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불린 사람이 더위를 사지 않겠다는 뜻으로 '내더위 맞더위'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느그 할압씨 철푸덕', '니도우 내도우 맞도우' 하고 되받는다.

제 응

질으로 허수아비 모양을 만들어 그 속에 직성(直星)이 든 사람의 생년월일을 적어놓고 노자

동전 혹은 쌀을 함께 넣어, 길가에 버리거나 도랑이나 개천에 버리기도 하고 물에 띄워 보내는 수도 있다. 버린 제웅을 주워 그 속에 든 돈으로 옷을 놓으면 운수가 좋다고 한다. 직성은 남자는 11, 20, 29, 38, 47, 56세에 들고 여자는 10, 19, 28, 37, 46, 55세에 든다.

다래끼 빠치기

14일 저녁에 자기 나이만큼 익힌 팔을 가지고 샘에 빠뜨리면서 눈에 끼는 다래끼를 빠친다.

잠 안 자기

14일에 잠을 자면 머리가 희어지거나 꿈뻥이가 된다고 한다. 또한 이불을 덮으면 두드러기가 인다.

노두 놓기

14일 밤에는 아들 없는 가정 또는 귀한 자식을 기르는 가정에서 수가 나쁜 사람들이 노두(징검다리)를 놓는다. 허수아비 3개와 오쟁이(짚꺼랭이) 3개를 만들어 꺼랭이에 밥과 나물을 넣고 야밤중에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노두목에 나가 이를 놓고 건너 갔다온다. 이때 꺼랭이에 돈을 넣는데 이 같은 액막이를 하면 신수가 좋아지고 무병하며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돈을 넣은 허수아비를 버리기도 한다. 이 동전을 빼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액이 옮겨가서 액막이가 된다고 믿는다.

노래기 없애기

노래기(사내기)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벌레인데 이를 없애기 위해 노래기 부적을 한다. 부적을 큰방 앞이나 서까래에 '향낭각씨속거천리(香娘閣氏速去千里)'라고 써 붙인다. 또 '노래기 밥주기'라 하여 솔가지를 꺾어다 지붕 위에 던지기도 하며 소금을 처마에 뿌리거나 귀가 부러진 바늘을 처마에 꽂기도 한다.

개미와 귀뚜라미 없애기

보름에 소금을 뿌린다.

불밝기(연등)

대보름에 연등을 했다. 대나무와 한지로 채색을 하지 않고 소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종지(종지기에 참기름을 담아 피우기도 한다. 또는 관솔불은 섬돌 위에 피우기도 하여 액을 물리고 복을 받아들인다.

샘물대기

샘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겨울에 남의 집 샘물을 몰래 길어다 부으면 그해 샘물이 마르지 않고 잘 나온다고 하여 부녀자들이 주로 한다. 마을 단위로 하기도 하는데 남의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 오면 그 동네의 정기를 빼오는 것으로 안다. 또한 다른 동네의 물을 가지고 오면 풍년이 든다고 믿어 14일 밤에 작당을 하여 이웃마을을 침범하고 자기의 마을을 지키곤 한다.

객토(개펄) 흙치기

다른 동네의 객토를 훔쳐와 자기 동네의 바닷가에 옮겨두면 그해에 김이 잘된다고 하여 가정 단위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숫대(짐대) 세우기

숫대는 소나무를 다듬어 세우며 꼭대기에는 새(오리, 매)를 깎아 올려놓는다.